

전북중기청, 자동차 부품기업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벤치마킹·학생 견학·연수프로그램 운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도 고도화된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기업의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견학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급·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시범 스마트공장의 지원대상은 도내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구입 비용의 70%(최대 4.62억원)를 지원한다.

사업신청기한은 30일까지로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테크노파크(스마트융합기술센터 / ☎ 063-832-6051)에 사업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광재 청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등 46종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대상은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46종이다. 구체적으로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인증한 뒤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하는 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우편물 원본과일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 173종까지 확대하겠다"라며 "납세자들이 세무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송천동 광신프로그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송천동 광신프로그램'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통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프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로서, 주택위치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9-8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1세대(전용면적 84㎡A형)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11월 19일(월)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에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수능 D-1...유통가, 수능 마케팅 열전

롯데마트 보온도시락 최대 30% 할인·패션업계 수험표 인증시 할인·선물증정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유통가에서는 막바지 수능 마케팅이 한창이다.

따뜻하게 도시락을 싸갈 수 있도록 보온용기 등을 할인하는가 하면 수험생임을 인증하면 선물을 증정하는 브랜드들도 눈에 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수능 필수 아이템인 보온도시락과 보온죽통 등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써모스 런치 보온도시락(브라운1.060ml)'을 4만7530원에, '롬바이홈키친 보온죽통(300ml)'을 1만5900원에, '롬바이홈키친 보온병'을 사이즈에 따라 각 1만7900원(350ml), 1만9900원(500ml)에 판매한다.

슬라이드 잠금장치를 적용해 원터치로 손 쉽게 텀블러를 열 수 있고 초경량이라 휴대가 간편한 '롬바이홈키친 원터치 텀블러(360ml/500ml)'는 시중 유명 커피전문점 텀블러의 반값 수준인 각 1만7900원, 1만9900원에 선보인다. 패션업계에서도 수능 마케팅이



롯데마트가 수능 필수 아이템인 보온도시락과 보온죽통 등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블랙야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능 척척 해시대 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 18일까지 블랙야크 제품 착용 인증점 텀블러의 반값 수준인 각 1만7900원, 1만9900원에 선보인다. 패션업계에서도 수능 마케팅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휠라도 18일까지 1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수험생에게는 '휠라 넥워머·비니 기프트세트'를 증정한다. 수험표를 제시해 수능 응시자임을 인증하면 매장에서 즉시 선물을 제공한다.

/뉴시스

농진청, 수출 이כל '점목선인장' 신제품 선발

오늘 완주서 품종 평가회 열어

미래 수출시장을 이כל '점목선인장' 새 품종을 뽑는다.

농촌진흥청은 오늘 완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점목선인장 품종 평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선인장을 붙여 만든 점목선인장은 국내 대표적인 화훼 수출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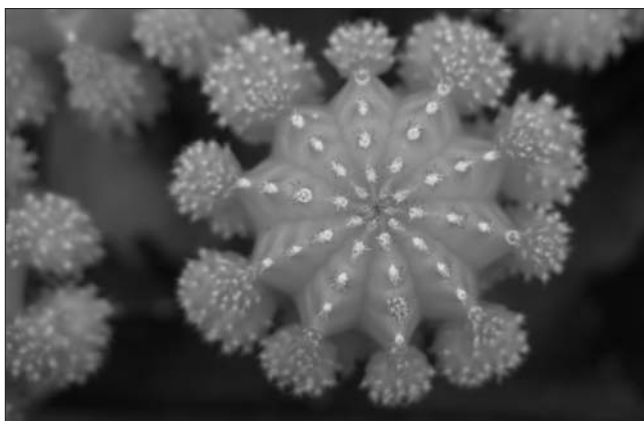
점목선인장은 원래 일본에서 개발돼 1950~1970년대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다. 일본이 인건비 문제로 생산을 중단한 뒤 한국에서 1980년

대 말부터 품종 연구를 시작했다. 농진청이 지난해까지 총 117품종을 개발했다.

현재 미국·네덜란드·일본·호주 등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 품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이른다.

점목선인장은 빨강·노랑·분홍·주황 등 다채로운 색상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오래 두고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번 평가회에서 선보이게 될 점목선인장은 총 15계통이다.

주황색인 '원교G1-314'와 '원교G1-315' 계통은 유럽에서 선호하는 색상



점목선인장 원교G1-314.

으로, 조적이 단단하고 증식력이 뛰어나다.

황색인 '원교G1-316'와 '원교G1-317' 계통도 색상이 선명하며 증식력이 좋아 조기 보급과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진적색을 띄는 '원교G1-318' 계통은 자귀(어린 선인장)가 모구(어린 선인장)에 고르게 달리고 증식력도 우수하다.

김원희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은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출 호황으로 조만간 누적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품종 개발로 수출을 늘리고 농민 소득도 올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정부, 김장철 고춧가루 등 성수식품 위생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 김치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김장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 7개 품목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등 가공식품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